



## 국경은 어떻게 그어질까?

글\_ 김동섭(조선일보 논설위원)

몇 년 전 중국 단둥에서 압록강에 있는 섬 위화도를 배타고 돌아 본 적이 있었다. 단둥은 강 건너편이 북한 신의주로 일제시대에는 안동으로 알려져 있던 곳이다. 고려 말 이성계가 군대를 되돌려 조선을 개국하는 계기를 만들었던 역사의 현장 위화도는 길이가 9km나 될 정도로 생각보다 큰 섬이었다. 안내자에게 “압록강에 다른 섬들도 있느냐”고 묻자, 큰 섬은 40여 개고, 작은 섬들까지 합치면 200여 개나 된다는 것이었다. 깜짝 놀랐다. 압록강에 이렇게 섬이 많다니. 강 건너 북한의 신의주 인근에는 압록강 물길이 변해 지금은 거의 중국 땅과 맞닿아 철조망으로 중국과 경계선을 만들어 놓은 비단섬도 있다.



압록강을 돌며 북한과 중국은 어떤 방식으로 국경 협약을 맺었을까 하는 의문이 끊이지 않았다. 최근 러시아가 북한과 두만강 국경선을 새로 긋는다는 얘기가 나오며 국경문제에 새삼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국도 남쪽 끝에 있는 해초 이어도를 자기 네 땅이라고 우기기도 했다. 실제 국경문제는 나라간의 충돌로 전쟁까지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변수인데 우리는 그동안 휴전선에 가로막혀 국경이란 문제를 심도 있게 거론해본 적이 없다.

우리는 통상 압록강과 두만강을 국경으로 알고 있는데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와 그은 국경선 방식이 정당했고, 우리 국민과 후손들이 흔쾌히 받아들일 정도로 민족 정통성과 정서에 맞는지도 국민들은 궁금할 뿐이다.

국경을 이루는 강은 경계를 나누는 데 여러 방식을 사용한다. 강의 중간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강의 양쪽 강변이나 강의 가장 깊은 곳을 국경으로 삼기도 한다.

북한은 중국과 1962년에 국경조약을 맺으면서 강은 공동하천으로 하고, 강 양쪽을 국경으로 삼았다. 이 때문에 우리가 중국 쪽을 거쳐 압록강을 가도 자유롭게 배를 타고 다닐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이 1957년에 맺은 러시아와 국경조약에선 두만강의 강 폭 중간을 국경으로 삼아 배를 타고 강의 중간 지점을 넘어설 수 없게 만들었다.

국경하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강안에 있는 섬들이다. 압록강과 두만강은 침식작용이 강해 강안에 섬과 사주(모래톱)가 많다. 홍수 등으로 물길이 변하면 섬이 육지에 붙기도 하고, 새로운 섬이 생겨나기도 한다.

북한은 중국과 국경협약에서 압록강 250개의 섬과 사주 중 127개, 두만강 246개 섬·사주 중 137개를 북한 땅으로 정했다. 절반가량이 북한 땅이다. 섬 영유권은 경계선을 그을 당시 그곳에 살고 있던

주민들의 숫자와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등을 따져 결정했다고 한다.

러시아와는 접경인 두만강에 섬이 17개가 있는데 이중 1개만 러시아 것이고, 나머지는 모두 북한 땅이 됐다고 한다. 이순신 장군이 3년여 있으면서 여진족을 쫓아냈던 녹둔도는 두만강의 잦은 범람으로 인한 토사의 퇴적으로 물길이 줄어들어 고종 때 아예 러시아 땅에 붙게 돼 '이름뿐인 섬'이 됐다. 그나마 1860년 청·러의 베이징 조약에 의해 일방적으로 러시아로 넘어가 버렸다. 국경 표시와 섬 영유권은 5만분의 1지도쯤 되어야 판독이 가능한데 중국과 러시아에는 군사용이라며 시중에서 구하기 힘들다. 지도를 살펴보면 함경북도 온성 주변 압록강에 있는 섬 남양도와 보천사주 등은 북한 땅이고, 간평도, 석건도 등은 중국 땅이다. 두만강에 있는 유다도, 하면도, 농포사주는 북한 땅이고, 고력성상도, 팔연성대도, 서장자 사주 등은 중국 땅이다.

북한이 이처럼 중국과 러시아와 국경협약을 맺었지만, 협상과정의 전모를 알 수 없다. 때문에 북한이 러시아와 중국이란 강대국의 힘의 논리에 밀려 압록강과 두만강에 제대로 국경선을 그었는지, 섬들의 소유권을 제대로 판단했는지 여부도 실제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우리가 통일이 될 때까지 할 수 있는 일은 압록강과 두만강, 그 안에 있는 섬들에 대한 역사적 자료를 모으고 국제법 등의 이론적 바탕으로 국경문제를 연구하는 것이다. 정부가 독도연구소를 설립했듯이 국경문제를 단순히 독도에 한정하지 말고 압록강·두만강도 체계적인 연구를 거듭해 국가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국제 학계나 여론에도 우리 영토를 알리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안 된다. †